

# “이번엔 꼭...바다야 도와다오” 미수습 가족 간절한 기도

## 세월호 인양 기원하는 동거차도 유가족들

### 1m 인양 소식에 안도의 한숨 내쉬며 “이제 시작” 작업 참관하게 해준다면 해수부 약속 안 지켜 속상

“시험인양에서 세월호가 1m 정도라도 들어올려 졌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는 바닷속 세월호와 1km가량 떨어져 있다. 동거차도 야산에서는 시험인양에 나선 잭박바지선 2척과 반잠수식 선박의 윤곽이 육안으로 바라다 보인다.

하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수시간째 움직임이 없는 잭박바지선을 멀리서 바라보는 유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했다. 맘 졸이던 유가족들은 오후 5시26분께 기본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해양수산부가 핸드폰 문자를 통해 “세월호의 선체가 해저 면에서 1m 가량 인양됐다”고 전해온 것이다. 꼭두재 벽부터 마나면 안산에서 동거차도를 찾아온 유가족들은 낭보를 전해 듣고 “이제 시작”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애초 ‘상하이셀비지가 작업을 시작하면 참관할 수 있게 해준다’던 해양수산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속이 상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시험인양이 시작됐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별다른 소식이 없자 유가족들은 애를

때었다. 유가족들은 따로 배를 빌려 인양 현장 인근에서 작업을 지켜보려 했지만 ‘인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멀리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맹골수도가 내다보이는 동거차도에는 이날 오후부터 세월호 선체의 시험인양을 취재하려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취재진이 모이자 마을 주민들은 취재진을 위한 방을 마련해주고 식사를 준비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으로서 이곳 동거차도에서 유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단원고 7반 동수 아빠인 정성욱씨는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시험인양 결과를 보면 인양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야간작업에서 선체의 수평을 제대로 맞춰 본인양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동거차도 야산에 설치된 움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움막에 설치된 카메라와 망원경을 이용, 이날 밤 시작될 본인양 작업을 지켜볼 계획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 문지성군의 아버지 문종길씨가 22일 진도 동거차도에서 참사 3년 만에 처음 시도되는 세월호 인양 과정을 카메라로 담고 있다. /동거차도=김한영기자 young@

## 초대형 트랜스포터 40대 확보 등 준비 분주

### 세월호 거치할 목포신항은

진도 맹골수도에 가라앉은 세월호 시험인양이 22일 성공하면서 본인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양된 세월호를 거치할 목포신항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목포시와 목포신항만주식회사에 따르면 인양된 세월호의 목포신항 거치를 위한 작업이 23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컨테이너가 이날부터 들어오게 된다. 모든 작업은 이날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최광수 서기관 등 공무원 4명이 22일 목포시와 목포신항을 찾아 거치 작업을 지휘했다.

이들은 신항 운영사인 목포신항만주식회사 측과 만나 세월호가 거치될 철재 부두의 공간배치 계획 등을 협의했다. 인양에서부터 목포신항에 거치되기까지는 2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해수부 측은 예상하고 있다.

세월호가 거치될 장소는 바다 쪽에서 봤을 때 신항 좌측 공간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공간에는 컨테이너 등을 활용한 40여 동의 사무실이 들어선다. 사무실은 세월

### 세월호 올려놓을 목포 신항



호 업무를 총괄할 해수부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업무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곳에서 장례지원, 미수습자 수습 및 신원 확인, 선체 조사, 선체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관리, 선체 정리, 현장 의료지원 등 업무를 보게 된다.

신항에 도착한 세월호를 싣고 철재 부두 거치 장소까지 옮길 초대형 트랜스포터 40여 대도 확보, 출동 대기상태에 들어갔다.

해수부가 오는 7월 20일까지 4개월간 임차한 철재 부두는 3만3000㎡ 규모로, 세월호가 놓여도 지반 침하의 염을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세월호 하중 계산 등 반복하다 보니 지연 인양하면 선체 위해도 조사후 수색·수습”

### 이철조 인양추진단장 일문일답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2일만에 해저면에서 1m 떠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선체 상태와 기상 상황을 검토한 뒤 본 인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22일 진도 군정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 시험인양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시험 인양이 2~3시간 걸린다고 말했던 것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당초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 실제 거동이 이뤄졌을 때 산출한 예상 소요 시간이다. 세월호는 수중 44m에 있고 수중 무게만도 8000t에 이르는 대형구조물로, 세월호 인양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지면에서 이격시키는 작업을 신중하게 추진했다. 인양 줄에 걸리는 인장력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상승시켰으며 선체에 하중되는 인장력을 계산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당초 시간보다 지연됐다고 생각한다.

- 작업환경이 바뀐 것은 아닌가.

▲기본적으로 시험 인양을 양호한 조건

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다. 어제 풍랑주의가 발효돼 오늘 새벽까지 여건이 좋지 않았다. 사전준비 작업이 다소 늦어졌지만 선체 시험 인양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

- 본인양은 언제쯤이나 가능한가.

▲잠수부가 투입된 상태. 현 상태에 대한 정밀한 육안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선체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어 선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각 66개 와이어에 걸린 하중을 계산해 선체를 평평하게 한 뒤 기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

-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목포신항에서 미수습자 수색 계획은.

▲세월호를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거치하게 된다. 수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체 위해도 조사이다. 선체가 수색·수습할 인력을 투입할 상황이 되는지를 강구해야 한다. 이후 세부 정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수색 계획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새로 발족되면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겠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광주지법 판사들 잇단 회의 연 까닭은?

### 법원행정처 학회 활동 방해 진상규명·재발방지 촉구

광주지법 판사들이 지난 21일 단독판사회의와 부장판사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상대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의혹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한 모임이었다. 이날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부장판사 1명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단독판사회의와 부장판사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

판사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학회 활동 방해는 부당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다. 이들은 공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장판사 1명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임박해지면서 광주에서도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단독과 부장 판사회의가 갑자기 개최됐다”며 “판사들은 행정처의 부당한 학회 활동 방해와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여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농협 소유 건물 임대 성매매…농협측은 알고도 ‘팔짱만'



○…농협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업주와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농협과 조합장 등이 재판에 회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협으로부터 임대한 건물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며 성매수자들에게 화대 명목으로 20만원씩을 받은 A(여·46)씨와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양의 한 농협 조합장 B(56)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A씨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조합장 B씨와 해당 농협은 “임차인의 퇴거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따르고 경찰 통보만으로는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1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1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지점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수익이 발생됩니다.

### 제품의 특징

- ▶ 육즙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럽다.
- ▶ 여러 잡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숯향(불맛)이 살아있다.
- ▶ 냉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팬션/콘도

- ▶ 닥시터, 야유회
- ▶ 캠핑시

